



가을 들녘의 동심

8일 함평군 나산면 신평마을 들녘에서 어린이들이 허수아비와 어울려 노랗게 익어가는 조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오곡(五穀)의 하나로 한때 보리 다음으로 많이 재배했던 조는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요즘에는 농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작물이 됐다. /함평 나산면=위직량기자 jwji@kwangju.co.kr

각종 경제지표 회복, 경기 살아난다는데...

광주·전남은 아직도 '한밤중'

2년새 아파트 3천세대 건설 취소 등 침체 높

지방 건설업계가 '빈사'상태다. 각종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등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유독 지방 주택경기만 한밤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별 효과도 없는 수도권 부동산 대책만 남발할 뿐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8일 한국은행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지표는 환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전으로 회복했다. 경상수지는 8월 44억 흑자로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했고,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2천454억달러로 1년 전(2천432억달러) 수준을 넘어섰다. 코스피지수는 작년 8월 말 1474.24에서 지난달 말 1591.85로 7.98% 상승했다. 수도권 집값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등 지방 건설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파격적인 혜택을 줘도 미분양 물량을 찾는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급기야 아파트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분양 승인을 취소하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부문 발주가 늘었다고는 하나 지방 경기 활성화의 바로미터인 건설업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올 상반기 모두 6개 단지 1천664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모두 6개 단지에서 1천387세대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지방경제에서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는데, 2년 새 3천여세대 아파트 건설이 취소될 정도로 주택업계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다.

특히 M산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 40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기로 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건설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하는 등 주택건설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분양에 나섰던 아파트 분양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광주시는 극심한 침체 상황의 지역 부동산 경기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분양한 주공진월 6단지 아파트의 경우 꺾꽂이 입지 여건 등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률은 72% 수준에 그친 상황이고 지역 미분양도 7천264세대에 이른다.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만 집중할 뿐 가라앉은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릴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값이 들쭉이자,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에 나서서 등 신축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는데 정부는 마치 이 나라에 지방은 없는 것처럼 정책을 펴고 있다"이라며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지방 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래식
한국정통/당장/조선장/한국민정
가정용·업소용 판매
산水土風
온정직합니다.
소매 (061)381-9893
성남실 010-6586-0001
보통건강음식점 운영분장 성업중

'플루 불똥'에 예산손실 눈덩이

홍보·섭외비 등 이미 집행 불구 행사 취소 잇따라

올 하반기 예정된 국제 이벤트와 축제 등이 일제히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광주·전남도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사에 따라 수익~수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지자체는 예산 손실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간히 쓰고 있으나, 이미 집행된 홍보비나 공연기획사 지급비, 건조물 등의 제작비 등은 어쩔 수 없이 손실로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330억원의 예산을 들인 '2009광주세계광역스포'의 경우 신종플루가 잠잠해지면 내년 봄이나 늦어도 가을 다시 개최될 예정이지만, 이미 수십억원이 홍보비나 콘텐츠제작비, 섭외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진단 측은 90억여원이 투입돼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무시민공원 내 주제영상관과 멀티미디어 분수대(공정률 70%) 등은

이달 안에 완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김치문화축제는 9일 추진위원회를 열어 축제기본계획을 변경, 학술대회나 공모전 등은 치르되 나머지 행사는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미 집행된 예산의 회수나 지급 등을 위해 정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홍보비나 행사 준비한 공연기획사에게 지급된 비용 등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 취소가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해당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동구는 다음달 13~18일까지 금남로 일원에서 열기로 한 '제6회 추악의 7080 총장축제' 취소해 3억4천만원 안팎의 예산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전시관은 물론 축제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뒤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동구는 축제 예산 6억8천만원 중 집행된 예산을 정산한 뒤 논의를 거쳐 남

은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남구 역시 오는 23일부터 5일 동안 남구 대촌동 7만6천㎡의 부지에 조성된 생태체험장에서 치르기로 했던 제2회 호사량 녹색문화산업전 취소하면서 2억3천만원 가량의 예산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해 214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명량대첩축제를 오는 10월8일~11일까지 4일간 개최기로 했지만, 3일로 단축하고 일부 행사를 축소하기로 해 수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됐다.

오는 10월 9일부터 3일간 목포 요트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도 취소됨에 따라 산술적으로 6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2박3일간 목포에 머물면서 사용할 비용을 1인당 2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 손실액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 서민 내집마련 쉬워진다

市,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2만세대 공급

앞으로 광주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광주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변 시세에 비해 30~50%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향후 10년 내 최대 2만 세대가 단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광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85% 이하 소형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주택구입자, 무주택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장애인 등이며,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또는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이 주어진다. 가격은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첫 보금자리 주택은 오는 11월 착공될 광주시 동구 용산동 700가구, 남구 효천지구의 780가구 등 모두 1천48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전 용단지 지정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해 실제 분양까지는 3~5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낮추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급안정과 주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주택 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2만 세대를 공급하는 정책을 모태로 하고 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또는 광주시 건축주택과(613-48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아모레퍼시픽 한물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와 소화와 균형 잡힌 '물리'를 구현하기 위한 한물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 1인 1실 케어
- 한방 화장을 한물 전용 사용
- 급수제독순수제 미샤제
- 아모레퍼시픽 뷰티호텔로
도 OK Cashless 사용가능

아모레퍼시픽